

## 샤를마뉴에 대한 중세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엇갈리는 기억

성 백 용\*

- I. 머리말: 신화의 탄생
- II. 샤를마뉴의 기억과 제국의 신화
- III. 분산된 기억들
- IV. 맺음말

### I. 머리말: 신화의 탄생

독일과 프랑스가 공유하는 ‘기억의 장소들’ 가운데 으뜸을 꼽으라면 라인강 이편에서든 저편에서든 대개는 샤를마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널리 공유된 기억은 또한 오랜 다툼의 대상이기도 했고, 바로 그러한 갈등의 역사 속에서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프랑스인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메로빙조에서 카롤링조, 카페조로 이어진 프랑스왕국의 가장 위대한 시조였다면, 독일인들에게는 바이에른과 작센을 통합하고 무엇보다도 독일 신성 로마제국을 창건한 첫 번째 독일 황제였다. 1512년 뒤러(Dürer)가 묘사한 초상에서 양쪽의 방패에 나란히 새겨진 프랑스의 백합과 독일제국의 독수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니와, 그가 이렇듯 이웃한 두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의 근저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제로 위대했던 그의 유산 못지않게 모든 위대한 가치들을 그에게 투영한 신비화된 기억이 큰 몫을 했다.

샤를마뉴 신화의 역사는 바로 그 신화의 주인공이 일으킨 아헨의 궁정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카롤링 르네상스’는 결과적으로 그를 위한 르네상스이기도 했으니, 그의 사절이자 사위였던 앙질베르(Angilbert)나 이 ‘호메로스’와 함께 궁정학교를 이끈 알퀸 같은 시인, 학자들이 온갖 미사여구와 과장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KRF-2004-072-AS3013).

된 어용 수사로 그의 이름을 장식했다. 이들에게 그 군주는 ‘새로운 다윗’이요 ‘세계 평화의 창시자’이며, 간혹 구름에 가리는 태양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유럽의 등대’요, ‘유럽의 아버지’, ‘유럽의 원수(元首)’였다. 그 앞에서는 “사나운 늑대도 온순한 양으로” 바뀔 것이며, 사나운 족속들도 그의 법과 지배 아래서 문명인으로 탈바꿈할 것이었다. 실제 로마 황제에 오른 800년부터 그의 공문서와 서명에는 ‘위대한(magnus)’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녔다.<sup>1)</sup>

각각 샤를마뉴의 아들(경건왕 루이)과 손자들 대에 씌어진 아인하르트의 『생애(Vita Karoli)』와 장크트갈렌(생갈)의 수도사 노트커(Notker Balbus)의 『공적록(Gesta Karoli Magni)』 역시 온갖 이상적인 군주의 미덕들을 그에게 투사했다. 예컨대 노트커는 수십 가지의 최상급 수식어(“지극히 영예롭고, 경건하고, 자비롭고, 현명하고, 용맹하고, 정의롭고, 황공하고, 신실하신……”)를 동원하여 이 위인을 찬양했다. 여하튼 이러한 기억의 샘들이 서서히 시내를 이루고 큰 물줄기를 이루며, 권력의 주위에서, 교회와 수도원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헌(공문서, 연대기, 전기, 족보, 성인전), 그리고 서사시와 민간 전설을 통해 집단기억 속에 뿌리를 내렸다.<sup>2)</sup>

그 기억은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지만, 가장 뚜렷이 자취를 남긴 곳은 역시 라인강 양편의 두 이웃나라였다. 적어도 샤를마뉴에 관한 한 프랑스와 독일은 기억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기억의 출처와 거기에 걸린 이해관계가 상이했던 만큼 그 기억의 내용과 전략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그 황제의 기억이 중세의 왕국과 제국에서 어떠한 운명을 겪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단 프랑스에서의 기억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독일 쪽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sup>3)</sup>

- 1) G. Tessier éd., *Charlemagne*(Paris, 1967), pp.401-416; W. Braunfels et al., *Charlemagne: Oeuvres, royonnement et survivances*(Aachen, 1965), pp.31-33;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de Charlemagne dans l'Empire germanique médiéval*(Paris, 1950), pp.2-15 참조.
- 2) Einhard & Notker the Stammerer, *Two Lives of Charlemagne*, L. Thorpe, trans. & ed.(London, 1969). 이외에 카롤링조 및 오토조 시대에 관한 주요 문헌 선집으로 B. W. Scholz trans. & ed., *Caorlingian Chronicles*(Univ. of Michigan, 1972); G. Tessier éd., *Charlemagne*; R. Folz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Paris, 1967) 등을 참조.
- 3) 성백용, 「샤를마뉴, 열두 세기에 걸친 황제의 전설」, 『역사비평』, 72호(2005, 가을), 388-416쪽. 이 밖에 프랑스 쪽의 기억의 역사에 관해서는 R. Morrissey, *L'empereur*

## II. 샤를마뉴의 기억과 제국의 신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샤를마뉴의 위광은 권력의 정통성을 보증하고 그 권위와 영광을 드높이는 중요한 상징 자산이었다. 독일의 거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 황제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자처하며 그와 그의 제국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이용하곤 했다. 카롤링조가 단절된 이래 빈번한 지배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군주들이 일관되게 추구한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그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념에서든 현실 정책에서든 하나의 준거였던 그 이상적 군주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먼저 오토 대제는 936년 샤를마뉴와 같은 프랑크족의 옷차림으로 아헨에서 ‘프랑크인들의 왕’으로 즉위하고, 951년 파비아에서 ‘롬바르디아인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보냈으며, 956년에는 ‘로마 황제’에 오름으로써 샤를마뉴의 발자취를 그대로 좇았다. 동시대의 연대기작자인 코르비의 수도사 비두킨트(Widukind von Corvey)에게 헝가리 족속에 대한 그의 혁혁한 승리는 곧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그리고 온 기독교세계의 희망이 바로 이 작센족의 수장에게 옮겨갔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표였다.<sup>4)</sup> 이 무렵에 기록된 수도사 아드소(Adso)의 예언에 등장하는 최후의 황제, 즉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 로마제국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감람산에 자신의 왕관과 홀을 내려놓을 그 영광의 메시아가 조만간 이 제국-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빌로니아, 메데아-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이어 종말까지 존속할 네 번째 제국-에서 출현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일로 보였다.<sup>5)</sup>

“태생으로는 그리스인이요 군주로서는 로마인”이었던 그의 손자 오토 3세는 인장 뒷면에 ‘로마제국의 부활(Renovatio Imperii Romanorum)’이라는 명문을 넣고 앞면에는 샤를마뉴로 보이는 군주의 초상을 새겼으며, 서기

à la barbe fleurie: Charlemagne dans la mythologie et l'histoire de France (Paris, 1997); Id., “Charlemagne”,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t. III/3 (Paris, 1992), pp. 631-673 참조.

4) R. Folz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 pp. 211-220; C. Bathias-Rascalou, *Charlemagne et l'Europe*(Paris, 2004), pp. 214-217.

5) 최후의 황제 및 적그리스도에 관한 중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의 예언들에 관해서는 G. Zeller, “Les Rois de France candidats à l'Empire: essai sur l'idéologie impériale en France”, *Revue historique*, t. 173(1934), pp. 273-311, 497-534 참조.

1000년 오순절에 그니에즈노를 순례하고 귀환하는 길에 아헨에 들러 옛 황제의 무덤을 열었다.<sup>6)</sup>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이 극적인 의식의 동기는 부활한 제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황제의 기억을 생생히 되살리려는 것이었다. 콘라트 2세(잘리어조)의 궁정사제인 비포(Wipo)는 이 군주의 전기에서 자신의 주인이야말로 샤를마뉴 이래 그의 옥좌-이때부터 ‘샤를마뉴의 옥좌’로 불리게 된-에 앉을 자격이 있는 가장 위대한 후계자이며, 실령 그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백성들이 금상의 즉위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적는다. 게다가 이 군주는 카롤링가의 피를 받은 부르군트의 왕녀(지젤)와 혼인함으로써 그의 아들 하인리히 3세에 이르러 제위를 “고귀하고 유서 깊은 샤를의 혈통”으로 복귀시켰다고 칭송받았다.<sup>7)</sup>

샤를마뉴를 동원한 정치적 수사는 슈타우펜조의 프리드리히 1세(바르바로사)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쾰른 대주교이자 상서인 라이날트 폰 다셀(Rainald von Dassel)과 여러 저자들 사이에서 그는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제2의 샤를마뉴(alter Carolus)’로 일컬어졌다. 황제의 삼촌뻘이었던 프라이징 주교 오토(Otto von Freising)는 그의 가문과 카롤링 가문 사이의 혈연적 유대를 확인했고, 어떤 이들은 메로빙 가문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혈맥의 뿌리를 찾았다. 이 황제와 더불어 옛 황제의 영광도 절정에 달했다. 1165년 12월 29일, 뭇 주교와 대영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제의 주제로 샤를마뉴의 유해를 ‘이전(translatio)’하고 그의 축일을 선포하는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황제의 기도(oratorio)’ 서두에서 그는 자신이 즉위한 이래 스스로 삶의 규율이자 통치의 모범으로 샤를마뉴의 뒤를 따라왔다고 밝히면서, “짐은 그의 예를 좇아 우리 제국 전역에서 교회의 권리와 국가의 지위와 법의 엄정함을 유지

6) 『노발레사 수도원 연대기』에 따르면 오토는 썩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황제의 시신에 경배한 뒤 이빨 하나를 꺼내고 장갑을 뚫고 나온 손톱을 깎은 다음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티트마르 연대기』는 시신에서 목에 건 금 십자가와 옷의 천 조각을 떼어낸 뒤 유해를 제자리에 놓았다고 전한다. 이경구, 『중세의 정치 이데올로기』(느티나무, 2000), 131쪽; Thietmar von Merseburg, *Ottonian Germany: The Chronicon of Thietmar of Merseburg*, D. A. Warner trans.(Manchester, 2001), p. 185; R. Morrissey, *L'empereur à la barbe fleurie*, pp. 19-21(ills. 1-2).

7) K. F. Werner, “Aix-la-Chapelle”, *Allemagne-France: Lieux et mémoire d'une histoire commune*, J. Morizet, H. Möller dir.(Paris, 1995), p. 66; Otto von Freising, *The Two Cities: A Chronicle of Universal History to the Year 1146 A. D.*, A. P. Evans & C. Knapp ed.(Columbia Univ., 1928), pp. 393-394.

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비록 이 시성은 프리드리히가 세운 대립 교황(파스칼 3세)을 통해서 이루어진 탓에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국의 수호성인이 된 샤를마뉴는 죽어서 신이 된 고대 로마의 황제들처럼 기독교세계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의 신성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렇듯 고조된 황제 숭배는 프랑스에서처럼 군주의 권력을 복돋우는 손쉽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는 주로 ‘프랑크인들의 왕’으로 표상된 프랑스의 샤를마뉴와 달리 독일의 샤를마뉴가 프랑크제국(Imperium Francorum), 로마제국(Imperium Romanorum), 기독교제국(Imperium Christianum)이라는 여러 차원의 지배권을 동시에 표상했다는 데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다시 말해 프랑크 군주인 그의 지배 영역이 로마 중심의 보편제국과 그 제국을 현실적 기반으로 하는 보편교회를 포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하여 이 다원적 유산에 이끌린 독일 군주들이 그의 표상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국의 부활’ 이후 황제들은 교회 및 대외 정책에서 샤를마뉴를 본받으려 했다. 이탈리아에 대한 개입, 이교도 선교 및 동진 정책, 교회 문제에 대한 지도 등이 모두 그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 예컨대 오토 대제는 대관 직후 교황 요한 12세와 로마인들의 충성 서약을 받았고, 그 이듬해 자신에게 제관을 씌워준 이 교황을 폐위시켰다. 또한 오토 3세는 자신의 증복인 제르베르 도리악(Gerbert d’Aurillac)을 교황에 앉히고, 이 시기 1000년의 교황에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의 교황과 같은 실베스테르(2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하인리히 2세는 그의 치세에 서임된 50명의 주교들을 거의 다 직접 임명하고 홀(笏)로써 서품했으며, 그의 아들은 서로 다투던 세 명의 교황을 모두 폐하고 레오 9세를 새 교황에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세계의 황제(orbis Imperator Augustus)’, ‘교회의 영도자(caput Ecclesiae)’라는 보편군주의 표상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즉, 그 위기는 주로—비잔티움 제국은 논외로 하고—교황청과 프랑스왕국 쪽의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8) J. Ehlers, *Charlemagne, l’Européen entre la France et l’Allemagne*(Stuttgart, 2001), pp. 20-22;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203-208.

9) 중세의 제국 관념 및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이경구, 『중세의 정치 이데올로기』; R. Folz., *The Concept of Empire in Western Europ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y*, S. A. Ogilvie trans.(London, 1969) 참조.

## 1. 제국과 교황청

오랜 동안 제국의 그늘 아래 있던 로마 교회가 그레고리우스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면서 교황청은 속권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속권에 대한 우월한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주교관(mitra)을 쓴 황제’와 ‘왕관을 쓴 교황’ 사이의 기나긴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sup>10)</sup> 먼저 교황청은 서임권투쟁을 거치면서 이른바 ‘제국의 이전(translatio imperii)’에 관한 반대 논리를 구축해나갔다.<sup>11)</sup> 이노켄티우스 3세 시대를 전후하여 완결된 그 이론에 따르면, 서기 800년의 ‘이전’은 과거 콘스탄티누스로부터 로마에 대한 성속의 권력(‘두 개의 칼’)을 양도받은 교황이 교회의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게을리 한 동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프랑크인 왕에게 그중 하나를 맡겼다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전권(plenitudo potestatis)’을 권 교황이 로마제국을 동쪽의 그리스인들에게서 회수하여 충실한 서쪽의 프랑크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제후들의 선출 행위는 단지 황제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일 뿐 진정으로 로마황제를 세우는 것은 바로 교황에 의한 대관이다. 이 대관은 교회를 섬기는 세속의 팔인 황제 직책을 봉으로 하사하는 ‘제국의 서임(provisio imperii)’인바, 황제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세습될 수 없으므로 수임자가 바뀔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격이 없는 후보나 본분을 저버린 황제를 거부할 권한 역시 맺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황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샤를마뉴는 교황 레오 3세의 봉신이 되었고, 교황은 진정한 황제가 되었으며, 제국은 교회의 종으로 두각을 나타낸 프랑크인 왕에 대한 교황의 선물이 되었다.

이에 황제와 그 권력의 옹호자들(기벨린)은 몇 가지 대응 논리로 맞섰다. 하나는 인민의 환호로 황제를 선출한 로마제국의 전통, 또는 카리스마를 지닌 특정한 가문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선출한 게르만족의 관습—마르크 블로크의 표현을 빌리면 세습제와 선거제를 아우른 제도<sup>12)</sup>—을 강조하

10) E. H. Kantorowicz, “Mysteries of State: An Absolutist Concept and its Late Medieval Origins”, *Selected Studies*(New York, 1965), pp. 381-398.

11) 800년 샤를마뉴의 대관의 의의에 관해서는 주 9)의 문헌들과 아울러 R. E. Sullivan ed., *The Coronation of Charlemagne, What Did It Signify?*(Lexington, 1959) 참조.

12) M. Bloch, “L’Empire et l’idée d’Empire sous les Hohenstaufen”, *Mélanges historiques*, t. 1(Paris, 1963), pp. 534-539. 예컨대 비두킨트에 따르면, 오토 1세는

는 것이었다. 샤를마뉴 황제 역시, 그리스인들에게서 버림받은 데 실망했거나, 아니면 여자 황제(비잔티움의 이레네)를 거부한 로마 인민의 환호로 선출되었고, 교황은 이 해방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재판과 성직서임권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서임권투쟁기의 몇몇 저자들은 774년 부활절에 로마에 입성한 샤를마뉴를 성직자와 인민들이 환호(“하느님에 의해 관을 쓴 영원한 아우구스투스 샤를 만세!”)했고 교황 하드리아누스는 그에게 교황을 서품할 권리와 함께 로마의 보호자(patricius)라는 직책을 수여하여 로마에 대한 지배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sup>13)</sup>

여기서 인민의 선출을 곧 섭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돌리고, 교황을 섭리의 단순한 집행자로 삼기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실제로 아인하르트는 말년에 접어든 황제가 813년 9월 11일 아헨 성당에서 후계자를 세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다. “프랑크 왕국 전역에서 지도자들이 소집되었다. 모두의 동의 아래 샤를마뉴는 루이에게 공동 통치권을 부여하고 그를 제위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는 루이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를 황제(Imperator et Augustus)로 부르도록 명했다. 샤를마뉴의 이 같은 결정을 모든 참석자들이 크게 환호하며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 결정이 나라의 안녕을 위한 하느님의 감화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sup>14)</sup> 이 기술에 따르면 황제를 세우는 의식에는 어떠한 종교적 요소도, 교황의 손길도 끼어들지 않는다. 루이는 오로지 프랑크 인민 전체의 동의와 그 아버지의 은혜로 제위를 물려받은 것이다. 오토 1세가 이미 955년에 레히펠트의 전장에서 승리한 그의 군대에 의해 국부(pater patriae)요 황제(imperator)로 선포되었다는 비두킨트의 기록도 같은

이미 부왕 치세에 왕으로 지명되고 부왕이 사망한 936년에 아헨에서 프랑크족과 작센족 인민에 의해 선출되었다. 선출 직후 마인츠 대주교는 오토를 “하느님께 선택받아 예전 하인리히 전하가 지명하고 방금 모든 제후들이 올림한 왕”으로 인민들에게 소개한다. R. Folz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 pp. 209-211.

13)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123-134.

14) Einhard & Notker, *Two Lives of Charlemagne*, p. 83. 이보다 앞선 『프랑크왕국 연대기』와 『루이의 생애』의 기록도 이와 비슷하다. B. W. Scholz ed., *Carolingian Chronicles*, p. 81; G. Tessier éd., *Charlemagne*, pp. 219-221. 한편 이러한 기록들에 기대어, 훗날 교권주의와 투쟁하던 프랑스 제3, 4공화국의 역사 교과서들 또한 대관식을 묘사한 삽화에서 프랑크 인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C. Lelievre, “Charlemagne: Un héros national, catholique romain ou européen”, C. Carpentier éd., *Identité nationale et enseignement de l'histoire*(Paris, 1999), pp. 43-49.

주장을 뒷받침했다.<sup>15)</sup>

이와 아울러, 황제를 세우는 효력의 원천이 인민의 선출에 있다는 주장은 로마에서의 대관보다 아헨에서의 즉위를 우선시하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1세의 지지자인 비테르보의 고트프리트(Gottfried von Viterbo)에 따르면, 정당하게 선출된 로마인들의 왕(Rex Romanorum)<sup>16)</sup>은 “샤를마뉴의 옥좌에 앉은 순간부터 합법적으로 독일을 보유하며 이탈리아에 그의 권위를 펼칠 수 있다.” 선출된 로마인들의 왕은 교황에게서 축성받기를 원하는 황제 후보자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이며, 만일 교황이 축성을 거부한다면 아무 주교나 그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은 사실상의 황제에게 그 저 칭호를 없애주었을 따름인 대관식 이전에 이미 그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3세기 말 알렉상드르 드 뢰스(Alexandre de Roes)는 황제의 직책을 교황이 수여한 것이 아니라 독일 왕위에 딸린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sup>17)</sup>

더욱 강경한 논리는 샤를마뉴가 “그 자신의 힘으로(sua virtute) 서쪽 제국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었다. 그 제국은 어느 누구의 협력도 없이 그의 역량과 공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니 그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그것을 상속해야 마땅했다.<sup>18)</sup> 정복의 영속적 결과로 첫 황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로마에 대한 소유권이 돌아갔다는 것인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로마의 정복으로 나타난 실질적 패권이 곧 신의 선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샤를마뉴가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보검과 마찬가지로 제국은 그 자신의 공덕에 대한 신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승리한 것은 12세기 초부터 관습으로 정착한 제후들의 선거가 인민의 선출, 따라서 신의 선택을 대변한다는 논리였다. 제후들의 선거야말로 진정한 황제를 세우는 절차이며, 아헨에서의 즉위나 로마에서의 대관은 상징

15) R. Folz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 p. 215.

16) 하인리히 3세 때부터 독일왕의 공식 칭호로 쓰인 ‘로마인들의 왕’은 선출 직후부터 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했으나 로마에서 재판을 쓰기까지는 로마황제 후보(‘미래의 황제’)였을 뿐이다. 그래서 선출된 이후 그의 전형적인 행보는 알프스 너머 이른바 ‘로마 원정(expeditio Romana, Römerzug)’에 오르는 것이었으며, 중도에 롬바르디아의 도시에 입성하여 ‘이탈리아왕(또는 롬바르디아왕)’으로 축성받고 신분회(Diet)를 개척하기도 했다.

17)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259, 386, 412-422.

18) *Ibid.*, pp. 194-195, 554-556.

적인 의례에 불과했다. 황제를 선출하는 이 제후들은 샤를마뉴를 보필한 열두 증신(pairs)의 후예인 동시에 800년 샤를마뉴를 환대하고 그에게 제국을 넘긴 로마 인민의 대변자이기도 했다. 이 선제후(principes imperii, Kurfürsten) 제도의 창시자 역시 샤를마뉴였다. 고트프리트는 773년 프랑크의 귀족들(proceres)이 적을 물리치고 제국을 차지하여 왕국에 합친 그들의 왕을 황제로 선출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알렉상드르 드 뒤스는 “거룩한 황제는 교회의 관리자인 제국이 세습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고 천상의 영감과 교황의 동의로 선거권을 독일 제후들에게 영구히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14세기 초 『작센법전(Sachsenspiegel)』의 한 주석자는 샤를마뉴가 제국 군대에 복무하는 독일인들의 용기와 충성을 가상히 여겨, 원로원이 비상시에 군대에게 위임한 원수(Imperator) 선출권을 그들에게 영구히 부여한 데에서 그 제도가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독일 제후들이 그를 통해서 로마 원로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다.<sup>19)</sup>

황제와 논자들은 교황의 주도권을 저지하기 위해 제후들의 선거를 옹호했지만, 그것은 또한 제위의 세습을 막고 제후들을 자신의 지렛대로 삼고자 피한 교황청이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 교황청은 제후들의 선거권마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여하튼 선거제를 옹호하는 이 주장은 교권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제후들이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기피하면서 저마다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서 독자적 권력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교황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거꾸로 교황청의 승리를 거두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sup>20)</sup> 그레고리우스 7세 이래로 역대 교황들에게 새로운 왕을 선출하도록 독일 제후들을 선동하는 것은 반항하는 황제를 위협하고 길들이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

실제로 여러 가문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던 13세기에 교황들은 제국의 조정자가 되었다. 1198년 아헨을 점령하고 로마인들의 왕으로 즉위한 벨프가의 오토 4세와 그를 지지하는 선제후들은 슈타우펜가의 경쟁자(슈바벤 공작 필립)를 따돌리기 위해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대관식을 구걸했고, 그 뒤

19) *Ibid.*, pp. 256-260, 388, 404-405.  
 20) 로마 교회는 성속을 막론하고 세습에 의한 권력보다 선거에 의한 권력을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겼거니와, 이는 그레고리우스의 개혁 이후 이른바 선택받은 가문의 신성한 피와 신성한 왕권의 관념을 경계하게 된 교회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M. Bloch, “L’Empire et l’idée d’Empire”, pp. 537-538.

를 이은 프리드리히 2세와 그 아들(콘라트 4세)의 치세에 교황과 황제들이 서로를 적그리스도로 매도할 정도로 극에 달한 투쟁은 슈타우펜조의 몰락과 함께 교황청과 제후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후의 대공위(大空位) 기간에 선제후들은 황제 후보인 콘월 백작 리처드와 카스티야왕 알폰소를 놓고 저울질을 했고, 결국 1273년 교황청의 낙점을 받은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알베르트 1세는 1303년 “전 세계의 주인이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앞에서 ‘교황의 봉신(homo papae)’이라 자칭하며 항복을 선언했다. 이로부터 다시 반세기가 더 지난 1356년 카를 4세는 「금인칙서」에서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오랜 관습을 금과옥조로 못 박아 영방적·과두적 형태의 군주정을 고착시켰다. 주위의 왕국들에서 장자를 통한 왕위 세습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철칙이 되어 있던 시기에 거꾸로 여기서는 선거제 원칙이 하나의 헌법이 된 것이다.

## 2. 제국과 프랑스왕국

샤를마뉴의 제국은 로마제국이었고, 로마제국은 곧 세계 자체였다. 1000년경에 제작된 북음서의 한 삽화에서 오토 3세는 슬라브, 헝가리, 그리스, 사라센, 아프리카 등지의 사신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세계의 중심이자 ‘세상의 주인(dominus mundi)’으로 등장한다.<sup>21)</sup> 보편군주권은 이론상의 권력이었을 따름이지만 때론 황제들의 행동 강령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프리드리히 1세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성지의 해방’은 세간에 퍼진 예언들처럼 세계 지배를 실현할 최후의 황제가 되는 길로 보였음직하다. 하지만 라이날트와 같은 그의 측근들이 영국, 덴마크, 프랑스의 국왕들을 가리켜 ‘소왕(reguli)’이니 ‘속주의 왕(provinciarum reges)’이니 하며 비하하던 그때에, 영토적 실체이기보다는 하나의 관념에 더 가까웠던 제국은 일련의 민족적 왕국들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sup>22)</sup>

그중에서도 예전 카롤링제국의 중추였을 뿐더러 그 이름 자체가 여전히 ‘프랑크족의 땅(Francia)’인 서쪽의 이웃 왕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면서 추억으로 남았던 과거의 영광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샤를마뉴의 기억을 왕조 이데올로기의 골간으로 보듬고 있던 이 이웃 왕국이 흥할수록 옛 황제

21)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Français et Allemands(IX<sup>e</sup>-XI<sup>e</sup> siècle)*, G. Duchet-Suchaux trans.(Paris, 1994), pp. 260-261.  
 22) G. Zeller, “Les Rois de France candidats à l’Empire”, p. 283.

의 기억과 위광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듯했고, 어쨌든 그 표상을 독차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루이 6세와 7세를 보필한 생드니 수도원장 쉬제(Suger)가 처음으로 천명했듯이 프랑스 군주들 역시 샤를마뉴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었다.<sup>23)</sup> 게다가 12세기의 십자군원정은 ‘프랑스인들을 통한 신의 역사(gesta Dei per Francos)’로 여겨질 만큼 이 왕국과 그 군주들의 명성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최초의 십자군 전사였던 샤를마뉴의 영예까지 없어주었다. 아드소가 예언한 최후의 황제가 이 카페조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었다.

급기야 1214년에 옛 황제의 깃발을 휘날리며 부빈의 전장에서 제국 군대를 물리치고 개신한 존엄왕 필립은 ‘제2의 샤를마뉴’로 칭송을 받았고, 그의 모친과 마찬가지로 카롤링가의 피를 이어받은 에노 백작의 딸과 혼인하여 ‘프랑크왕국의 샤를마뉴 혈통으로의 복귀(Reditus Regni Francorum ad Stirpem Karoli Magni)’에 관한 예언을 실현시켰다.<sup>24)</sup> 이를 기념하기라도 하듯이, 그의 손자인 성왕 루이는 생드니 수도원에 묻힌 메로빙조-카롤링조-카페조 국왕들의 묘역을 가지런히 배치하여 이 세 왕조의 연속성을 가시화했다. 그런데다 독일 황제와 앙숙이 된 교황(그레고리우스 9세)이 이 프랑스 군주를 샤를마뉴의 진짜 후손으로 추켜세우던 터이니, 기고만장한 교황청의 뜻대로 제국의 지배권이 슈타우펜조의 독일에서 성왕 루이의 왕국으로 이전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1239년 프리드리히 2세가 교황에게 파문당한 뒤 성왕 루이의 아우인 아르투아 백작 로베르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아우인 앙주 백작 샤를은 이탈리아의 교황파(겔프)에게 새로운 샤를마뉴로 기대를 모으며 1266년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 만프레드를 격파한 뒤 시칠리아 왕관을 차지했고, 그 여세를 몰아 그의 조카(필립 3세)를 비어 있는 제위에 앉히고자 했다.<sup>25)</sup>

프랑스왕국의 도전이 불러일으킨 불안은 샤를마뉴의 기억을 또 다시 변형시켰다. 그러한 변형의 목적은 물론 그의 제국과 현 제국 사이의 연속성-따

23) 쉬제는 813년 샤를마뉴가 생드니를 황제의 축성 장소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K. F. Werner, “Aix-la-Chapelle”, pp. 66-67. 라이날트와 프라이징 주교 오토는 쉬제가 활약하던 시기에 파리에서 유학했으므로 생드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유포된 카페조의 선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4) G. M. Spiegel, “The ‘Reditus Regni ad Stirpem Karoli Magni’: A New Look”,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1971), pp. 145-174.

25) G. Zeller, “Les Rois de France candidats à l’Empire”, pp. 285-288.

라서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잘 알다시피 이웃 왕국은 오토조의 제국이 프랑크족에게 정복당한 작센족의 제국일 뿐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제국이 옛 프랑크제국의 정당한 후신임을 부인하고 있었다. 약점을 건드리는 이런 논리에 맞서기 위해 제국의 논객들은 프랑크와 작센 등 여러 종족들(Stämme)을 포괄하는 튜튼족 또는 독일민족이라는 관념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다.<sup>26)</sup> 이미 12세기 중엽에 씌어진 『황제연대기』는 옛 프랑크왕국의 도움을 잉겔하임으로 잡고 샤를마뉴를 ‘독일 출신의 첫 황제(der este Kaiser von diutischen Landen)’로 일컬었다. 한편 프라이징 주교 오토에게 작센조의 오토 1세는 튜튼의 프랑크족(즉 동쪽 프랑크족)에게 제국을 되돌려주었기에 ‘첫 튜튼인들의 왕’으로 불리며, 따라서 그가 회복시킨 이 제국은 ‘프랑크 또는 튜튼(Francorum sive Teutonicorum)’ 제국이었다. 프랑크왕국과 독일왕국(regnum Teutonicorum)의 이 같은 연속성과 동일시는 궁재 샤를 마르텔-프랑크왕 페펑-샤를 대제와 작센 공작 오토(880-912)-독일왕 하인리히 1세(919-936)-오토 대제(962-973), 이 두 계보 사이의 유비로 표현되었다.<sup>27)</sup>

또한 프리드리히 1세 때 씌어진 『리구리누스(Ligurinus)』는 ‘두 프랑키아’ 가운데 서쪽의 골족을 정복한 프랑키아는 곧 이탈하고 동쪽의 프랑키아만이 독일왕국이 되었으며, “시캄브르인, 게르만인, 튜튼인, 프랑크인은 잡다한 종족들이 아니라 하나의 독일민족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고트

26) 이는 물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베르너에 따르면 오토조 시대에 게르마니아에는 프랑크, 작센, 바이에른, 슈바벤, 알라마니, 튀링기 등 여러 종족들이 병존했을 뿐 이들을 통칭하는 어법은 아직 통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프랑크, 부르고뉴, 아키텐, 브르통, 노르망 등 여러 종족의 영역들(regna)이 병존한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1세기에도 옛 프랑크왕국의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은 분열은 독일과 프랑스가 아니라 이 종족 단위의 작은 왕국들이었다. K. F. Werner, “Les nations et le sentiment national dans l’Europe médiévale”, *Structures politiques du monde franc, VI<sup>e</sup>-XII<sup>e</sup> siècles*(London, 1979), pp. 285-304.

27) Otto von Freising, *The Two Cities*, pp. 376-377, 383-384. ‘독일왕국(regnum Teutonicorum)’이라는 표현은 919년에 처음 나타나지만 11세기에 가서야 통용되고, 1077년부터 하인리히 4세의 공문서에서 쓰였다. 로망어가 아닌 ‘인민(theod)’의 언어를 가리키던 ‘theodiscus(deutsch)’가 이 왕국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것 또한 잘리어 조 때부터이다. ‘독일’에 관한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ch. 2-3; H. Thomas, “Sur l’histoire du ‘Deutsch’ depuis le milieu du XII<sup>e</sup> siècle jusqu’à la fin du XIII<sup>e</sup> siècle”, R. Babel et al. éd., *Identité régionale et conscience nationale*...(Paris, 1997), pp. 27-35 참조.

프리트에게도 프랑크인은 곧 독일인이고, 잉겔하임에서 태어난 샤를마뉴 역시 철저히 독일인이었다.<sup>28)</sup> 12세기 말부터, 롤랑 이야기를 비롯하여 단연 프랑스의 자랑거리였던 서사문학이 번안되어 유포되면서 샤를마뉴가 프랑스 태생(Francigène)이라는 관념이 함께 들어왔고, 논리적으로 이는 독일이 정복된 땅임을 의미했다.<sup>29)</sup> 하지만 정치 담론에서는 ‘이방인 샤를마뉴’를 용인할 수가 없었다. 프랑크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인들의 뿌리도 역시 프랑크족이므로 그는 ‘프랑크-독일인(Deutschfranke)’임에 틀림없었다. 아인하르트가 기록한바 그가 열두 달과 바람에 새로 지어 붙였다는 이름들은 바로 독일어였고 그의 입에서 선포된 법령들도 당연히 독일어였을 것이다.<sup>30)</sup> 훗날 프랑수아 1세가 황제 선거에 나섰을 당시 뵘펠링(J. Wimpfeling) 같은 인문주의자들의 외국인 후보 배제론을 뒷받침한 것도 바로 ‘독일인’ 샤를마뉴였다.<sup>31)</sup> 이 무렵에 등장한 명칭처럼 그의 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민족의 신성 로마제국(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이었던 것이다.

알렉상드르 드 뒤스는 트로이인의 후예로 라인 유역에 정착한 프랑크인들이 거인 테우토나의 여자 후손들과 피를 섞어 튜튼(게르만)인이라 불리게 되었는바, 서쪽으로 진출한 일족은 토착민(골족)과 완전히 뒤섞여 프랑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본거지에 남아 순수성을 보존한 프랑크족의 우월성은 샤를마뉴 대에 와서 로마제국을 손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렉상드르는 이 제국에 재통합된 프랑스에 그 유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즉 독일은 제권(Imperium)을, 로마는 사제직(Sacerdotium: 교황권)을, 그리고 프랑스는 학문(Studium)을 제각기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프랑스의 몫으로 세습적 왕위과 제국에 대한 독립성을 보탬으로써 독일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과 엄연한 현실을 절충하고자 했다.<sup>32)</sup>

28)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254-256.

29) 블로크는 이 같은 문학전승을 통해 샤를마뉴의 이미지가 프랑스에서처럼 대중화되지 못한 탓에, 카페조를 경쟁상대로 의식한 독일 측 논객들이 그 이미지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M. Bloch, “L’Empire et l’idée d’Empire”, pp. 543-544.

30) Einhard & Notker, *Two Lives of Charlemagne*, p. 83.

31) G. Zeller, “Les Rois de France candidats à l’Empire”, pp. 503-504.

32) *Ibid.*, pp. 288-290, 302-303. 프랑스가 학문을 보유한다는 생각은 지식 또는 지혜가 동에서 서로, 즉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 그리스-로마를 거쳐 프랑키아로 이전되었다는 통설과 파리 대학의 명성에서 말미암았을 것이다. Otto von Freising, *The Two*

그럼에도 14세기에 와서 샤를마뉴는 프랑스왕 필립 4세의 명실상부한 후원자로 기운 듯했다. “프랑스왕은 그의 왕국에서 황제(Rex Franciae imperator in regno suo)”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주장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이었던 왕국의 독립성을 천명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웃 제국이 주장하는 보편군주권에 맞서 프랑스국왕의 완전한 주권을 옹호한 것이었다. 못 군주들 가운데 황제가 맨 앞자리에 있을지언정 그가 종주일 수는 없었다. 프랑스국왕의 권력은 신 이외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훗날 『도원몽』의 저자가 역설했듯이, 오히려 왕이 황제보다 “더 오래되고, 더 영예로운” 칭호일 수도 있었다. 그리스도는 “황제 중의 황제가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불리지 않았던가?<sup>33)</sup> 아울러 그것은 보편적 교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사실 1303년의 아나니 사건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듯이 프랑스국왕들 또한 교황청과의 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분쟁은 으레 교황청의 간섭에 대한 방어적인 저항에 그쳤을 뿐 교황권 자체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후로 사도좌가 프랑스국왕의 영향권 아래 놓이고, 동방에서 종종 그 국왕을 진정한 황제로 여길 만큼 왕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1308년 필립 4세의 형제인 샤를 드 발루아를 제치고 로마인들의 왕으로 선출된 록셈부르크가의 하인리히 7세는 일찍이 프랑스 모후(마리 드 브라방)의 궁정에서 자라고 프랑스국왕에게 기사서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 주종관계처럼 제국과 왕국의 역관계는 역전되고 있었다. 독일 황제들에게 이론상으로나마 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는 한 가지 길은 샤를마뉴와 프랑크족이 진정한 독일인이었고 그들의 후예에게 대물림된 제국이 또한 보편적인 제국이었음을 새삼 강조하며, 왕들의 조정자이자 기독교세계의 방어와 평화와 화합의 주재자인 로마 황제로서의 사명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그들은 제국의 권리에 관한 최소강령조차 지켜내기가 힘들었다.

하인리히 7세의 손자 카를 4세는 카롤링조 이후 처음으로 샤를마뉴와 같은 이름의 황제였다. 그 역시 프랑스 궁정에서 성장했고, 여기서 샤를 4세의 권

*Cities*, pp. 322-323; C.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Paris, 1985), pp. 405-409; S. Lusignan, “L’Université de Paris comme composante de l’identité du royaume de France”. R. Babel et al. éd. pp. 59-72.

33) Maillot, J. éd., *Le Songe du vergier*(Strasbourg, 1957, réimp. de l’éd. Brunet 1731). t. 1, p. 97.

유로 벤체슬라스라는 이름을 카를로 바꾸었다. 이상과 현실을 분별할 줄 알았던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독일의 분열을 인정한 채 보헤미아에 정성을 쏟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제국과 황제의 권위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이름의 조상인 그 황제와의 혈연적 유대나 성유물을 동원한 황제 숭배 같은 상징적 차원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보편제국은 고사하고 ‘독일제국’마저도 실체가 모호한 것이었다. 미래는 민족적 왕국들 편으로 기울고 있었기에, 위대한 제국의 꿈을 보증하는 샤를마뉴의 표상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갔다. 그것은 제국이 왕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

### III. 분산된 기억들

오토 대제 이후 로마 황제들의 야심을 부추긴 제국의 이상이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 이상의 보증자인 옛 황제 또한 환멸에 휩싸인 채 점점 더 노쇠해갔다. 하지만 제국의 지평에서 샤를마뉴에 대한 기억이 이렇듯 중세 말로 갈수록 쇠퇴해간 것과 대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그 기억은 점점 더 무성하게 가치를 쳐 나갔다. 말하자면 원심력들이 구심력을 앞지르던 제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재현된 형국이었다. 실제로 기력을 잃어가는 제국의 운명에도 아랑곳없이 그 황제의 이미지에 줄곧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주로 종교단체, 도시, 영방, 이렇게 세 영역에서 거듭 환기되고 복제된 지역 차원의 기억들이었다.

#### 1. 교구와 수도원들

신앙의 시대는 신앙의 영웅들을 필요로 했거니와, 그 영웅이 교회의 현실적 이해관계까지 거들 수 있다면 더 이를 나위가 없을 것이었다. 지역 교회와 성직자들의 기억 속에서 샤를마뉴는 투철한 신앙의 수호자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더없이 관대한 후원자요 시혜자였다. 따라서 그의 기억이 지역 종교 단체들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생산되고 이용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샤를마뉴의 상서부여 보존된 것 가운데 독일 지역에 관련된 특허장들이 대개 교구와 수도원에 수여되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황청에 대한 헌신적 봉사, 선교사 황제가 설립한 교구와 수도원들, 그리

고 발길이 닿은 곳마다 그가 베푼 특혜와 선물들이 그러한 기억의 씨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기억은 교구들이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주교령의 범위와 권한 따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할 때 아주 든든한 배경막이 되어주었다. 에켄대 트리어, 보름스, 뷔르츠부르크 같은 라인 유역의 유서 깊은 교구들은 그를 교회의 열렬한 후원자로 떠받들었고, 브레멘, 페어텐, 민덴, 오스나브뤼크, 뮌스터, 파더보른, 할버슈타트, 힐데스하임 등 작센 지방의 교회들은 너나없이 그를 교구의 설립자로 기억하면서 그의 명으로 파송된 자기 교구의 초대 주교들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영지와 십일조, 면제권과 재판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정당화했다. 막데부르크는 카이자르가 세우고 샤를마뉴가 개종시키고 오토 대제가 대주교구로 승격시킨 교회임을 자랑했다. 그 사도 황제의 기억은 어떤 교구가 선교 기지로서의 사명을 자임하며 새로운 신앙의 개척지에 대한 이런저런 권리를 요구할 때에도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796년에 설치된 잘츠부르크 관구의 파사우 교구는 오토 3세 치세에 헝가리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1065년 경 브레멘 대주교 아달베르트(Adalbert)는 발트 연안 및 스칸디나비아 교회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며 황제의 위임으로 성 빌레하트(Willehad)가 관할했다고 하는 지역들이 명시된 문서를 위조했다.<sup>34)</sup>

하지만 기억의 조작과 복제의 전문가들은 역시 수도원에 모여 있었다. 이들에게 그 황제는 무엇보다도 특권의 시혜자였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주교의 관할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기에 될 수 있는 한 가장 든든한 시혜자가 필요했다. 수도원이 보유한 성경이나 수도회칙, 설교집까지도 이왕이면 그 황제의 선물로 꾸며대는 편이 더 나았다. 샤를마뉴를 그런 시혜자로 내세우는 것은 이 군주의 정당한 후예임을 자처하는 통치자들에게서 호감과 호의를 끌어내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실제로 많은 수도원들이 황제의 치세에 토지를 기증받았고, 특히 헤르스펠트(Hersfeld), 라이헤나우(Reichenau), 풀다(Fulda) 같은 몇몇 수도원들은 성속 권력으로부터의 면제권과 자율적으로 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하사받았다.<sup>35)</sup> 이런 수도원들은 이후 주교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황제의 후계자들에게서 이런 특권을 거듭 확인받았을 뿐

34)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33-37, 71-73, 110-112; Id., *Etudes sur le culte liturgique de Charlemagne dans les églises de l'Empire*(Paris, 1951), pp. 16-29.

35)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19-26, 106-107.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토지와 지대 등에 대한 권리, 특히 십일조 수취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줄곧 새로운 전거들을 조작해냈다.

게다가 이런 수도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곧 인근 수도원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9세기 말에 장크트갈렌 수도원은 780년 이탈리아 원정 도중 근처를 지나던 황제에게 탄원하여 원장 선출권을 하사받았다는 기사를 수도원 연대기에 슬쩍 끼워 넣었다. 바이에른의 개종과 아바르 원정의 진초 기지였던 만큼 황제의 체제가 잦았던 라티스본(레겐스부르크)의 장크트에머람(St. Emmeram) 수도원은 후대의 카롤링조 군주들에게서 받은 특혜들을 그 유명한 선조의 은덕으로 돌리면서, 일련의 문서에서 재산·수입(temporel)의 자유처분권 및 원장 선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 수도원을 주교 및 공작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하며, 금화 7 솔리두스의 연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황(레오 3세)의 보호 아래 두었다는 구절을 명시했고, 1035년경에는 그 군주가 도시 전체에 대한 영주권까지 하사했다는 전승을 지어내기도 했다.<sup>36)</sup>

이러한 움직임은 서민권투쟁에 따른 혼란의 와중에서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 세속 권력과 그 대리인(advocatus)들의 침해에 맞서 수도원의 자유를 확인하고 확대하고자 했던 라이헤나우 수도원은 쉬바벤 지역에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일련의 위조문서에서 샤를마뉴는 수도원에 콘스탄츠 교구로부터의 면제권과 울름의 영지를 하사하고, 자신의 한 친척을 속권 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이 대리인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선례를 좇은 인근의 켐프텐(Kempten) 수도원은 쉬바벤 태생인 힐데가르트 왕비를 창건자로 내세우고, 946년 마자르족의 침입으로 파괴된 수도원을 재건하던 중 이 성녀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전승을 지어냈다. 물질을 기증한 아내에 이어 남편은 이 수도원에 자유를 선사하고 속권 대리인의 권한을 규제한다. 스트라스부르 주교들의 침탈에 맞서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에버스하임(Ebersheim) 수도원 또한 12세기 초 샤를마뉴의 이름으로 꾸민 문서에서 성속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권과 소유권을 확인받았고, 비슷한 갈등을 겪던 스트라스부르의 참사회원들 역시 교황과 손잡고 성직매매를 차단했던 그 군주의 후원에 힘입어 참사회 재산의 분리와 주교의 선출권을 보장받고 양속이던 주교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sup>37)</sup>

36) *Ibid.*, pp. 107-110, 154-155.

37) *Ibid.*, pp. 147-153, 479-488, 522.

이 밖에도 많은 교구와 수도원이 성인이나 성유물에 관련된 전승 속에 옛 황제와의 돈독한 인연을 새겨 넣었다. 사실 웅만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단체라면 그 명성과 권위에 걸맞은 성인이나 성유물 숭배의 전통이 있기 마련이었고, 또 이를 증거하고 선전하기 위해 갖가지 전승들—성인전, 기적담, 성유물 설화 등—을 생산하고 유포하기 마련이었다. 여기에 그 황제를 때론 설립자로, 때론 친근한 벗으로, 그리고 대개 너그러운 시혜자로 끌어들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꼭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그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쇄신하는 데 정열을 쏟은 투사요, 재물과 함께 자신이 길러낸 인재들을 각지의 교구와 수도원에 보낸 교회의 대부였고, 끊임없는 원정과 순례로 곳곳에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로의 동방여행에서 수만 유물을 들여와 여러 교회와 수도원에 나누어주었다는 전설은 이들 사이에 그의 기억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매개물이 되었다. 술한 수도원들이 이 은인의 이름을 기일표(忌日表)에 올리고 1월 28일 위령예배를 올리던 관행은 1165년의 시성 이전부터 그가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38)</sup> 매년 수도사들이 되던 추모기도가 그의 기억을 영구 보존시킨 방부제였다.

## 2. 도시들

12세기부터 도시들 또한 황제의 기억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참으로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교회가 독점해온 기억에 새로운 색채가 가미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아헨은 그 기억에 관한 도시 전승의 진원지였다. 샤를마뉴가 사냥 도중 우거진 숲속에서 발견한 로마시대의 큰 온천(Aquae Granni)과 궁터에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 성당과 자신의 궁전을 세운 데서 유래했다는 이 도시를 프랑스의 생드니와 같은 기억의 성역으로 가꾼 주역은 바로 그의 후계자들이었다.<sup>39)</sup> 과거 프랑크 ‘왕국의 중심(sedes regni)’이었던 이곳은 독일

38) 샤를마뉴를 기리는 전례의 관해서는 *Ibid.*, pp. 26-27, 353-354; Id., *Etudes sur le culte liturgique de Charlemagne*, 2e partie 참조.

39) 다른 전승에 따르면 마법의 반지가 제국의 수도를 물색하던 황제에게 이 장소를 점지했다고 한다.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 517. 하지만 본래 친형인 카를로만으로부터 아우스트라시아까지 넘겨받은 단구왕 페팡이 동쪽 방면의 원정을 위한 겨울 체류지로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록상에는 765년 성탄절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이곳에 머문 것으로 처음 언급된다. K. F. Werner, “Aix-la-Chapelle”, pp. 44-45.

왕위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역대 국왕들은 선출되고 도유받은 다음 이른바 ‘샤를마뉴의 옥좌’에 즉위함으로써 비로소 정통성을 보증받을 수 있었다.<sup>40)</sup> 게다가 ‘제국의 이전’이라는 관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정신적 수도는 콘스탄티노플과 어깨를 겨루는 ‘제2의 로마’ 또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곤 했으니, 이 같은 상징의 자산을 보유한 왕도가 여러 군주들의 각별한 애정과 특혜를 누린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누구보다도 그 황제와의 연속성에 집착했던 프리드리히 1세에게서 이 도시는 국왕의 축성지로서의 권리를 확인받았고, 모든 시민들은 그 선조가 부여한 자유와 보호를, 그리고 상인들은 제국 전역에서의 영업의 특권을 보장받았다. 또한 옛 황제가 동방에서 들여와 성모의 성당에 바쳤다는 성유물들은 늦어도 프리드리히 2세 때부터 7년마다 성당의 봉헌일(7월 17일) 전후로 보름 동안 현시되었고, 덕분에 아헨은 프랑스의 생드니와 마찬가지로 못 순례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었다. 카를 4세는 이 도시가 한때 자신을 거부하고 정적에게 충성했음에도 보복은커녕 종래의 특권에 새로운 특권들을 더 얹어주었다.<sup>41)</sup>

아헨은 다른 도시들에게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그 도시의 설립자가 주민들에게 하사했다는 특권들은 이들에게도 황제의 유훈처럼 메아리쳤다. 옛 프랑크 왕국의 심장부였던 리에주의 관습은 곧 샤를마뉴의 법으로 일컬어졌고, 취리히, 라티스본,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는 그의 직계 후손들이 배운 시혜들이 모두 그 선조에게로 돌려졌다. 1186년 브레멘은 프리드리히 1세로부터 “거룩한 황제 샤를이 초대 주교인 성 빌레하트의 간청으로 1년 1일을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음을 확인받았고, 하인리히 5세 때에는 비밀법정(Vehme)으로부터의 면제, 베저강의 치안과 시참사회원의 기사 복장, 황제와 룰랑의 문장에 대한 권리까지 허락받았음을 확인받았다. 이후 브레멘은 엘베강 건너 리가에 이르는 여러 북부도시들에게 다시 모방의

40) 경건왕 루이(813) 이후 함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1세(1531)에 이르기까지 32명의 군주들이 아헨에서 도유를 받고 즉위했다. *Ibid.*, p. 71.

41)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225-237, 448-450. 프랑스의 샤를 5세와 루이 11세 또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아헨의 상인들에게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고, 아헨 성당에 많은 재물을 기증했다. R. Folz, “Aspects du culte liturgique de saint Charlemagne en France”, W. Braunfels ed., *Karl der Grosse: Lebenswerk und Nachleben*, Band 4(Düsseldorf, 1968), pp. 79-80.

대상이 되었는데,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간 그 황제의 기억은 상급재판관이나 통행세 면제, 시장 개설 등의 사법적·경제적 특권에 대한 도시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거들었다.<sup>42)</sup>

샤를마뉴의 인기는 몇몇 도시의 전설에도 파고들었다. 연대기작자인 티트마르(Thietmar von Merseburg)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라는 지명은 작센인들에게 쫓긴 샤를의 군대가 한 사슴의 인도로 마인강을 무사히 건넌 지점, 곧 ‘프랑크족의 여울(Frankenfurt)’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sup>43)</sup> 한편 라티스본은 도나우강 북안에서 이교도에게 포위된 샤를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뒤 ‘좋은 뗏목(Ratisbonne)’이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고, 카를스부르크(Karlsburg) 또는 카를슈타트(Karlstadt) 성이나 단구왕의 출생지인 리에주 근처의 쥐피유(Jupille) 궁과 더불어 샤를의 출생지로 널리 선전된 잉겔하임은 그가 천사(Engel)에게서 검을 받은 곳이라는 전설이 생겨났다. 카를 4세 시대에 이르러 이 도시들은 프라하와 함께 남다른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프리드리히 1세의 명으로 복원된 잉겔하임의 궁전 안에 벤체슬라스와 샤를마뉴를 기리는 예배당이 건립되어 보헤미아 출신의 수도 참사회원들이 예배를 보았고, 이교도에 대한 승리의 기억을 간직한 라티스본은 제국도시(Reichsstadt)의 지위와 아울러 또 하나의 황제 숭배지로 발돋움했으며, 프랑크푸르트는 금인칙서에서 차후 선제후들의 선거회의 장소로 지정되어 아헨에 버금가는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sup>44)</sup>

14-15세기에 샤를마뉴는 도시의 자유에 대한 보증자로서 입지를 굳힌 듯했다. 앞서 살펴본 교구나 수도원들과 마찬가지로 유서 깊은 도시들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성당과 수호성인, 문장과 인장, 무엇보다도 그들이 누리거나 누리길 원하는 자유와 특권들을 제각기 그에게 결부시켰다. 그 황제가 자주 거쳐 간 보름스는 제국도시의 지위를 바로 그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주장했고, 스트라스부르 역시 제국도시의 지위와 많은 성유물들을 내려준 황제에게 감사하며 대성당의 두 채색유리창을 그의 모습으로 장식했다. 한편 뉘른베르크는 1423년 카를 4세의 아들인 지기스문트의 명으로 제국의 상징물들(Insignia

42)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p. 229-231, 507-513.

43) Thietmar von Merseburg, *Ottoman Germany*, p. 360. 또 다른 설화에 따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프랑크 병사들에게 작센인들이 “프랑크족 물러가라!(Franke fort!)”고 야유한 데서 그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 518.

44) *Ibid.*, pp. 256, 356-359, 442-448.

Imperialia)을 옮겨온 이래 4세기 가까이 기억의 보고로 자리잡았다. 차후 국왕 대관식이 거행될 때마다 이 도시의 대표단이 비밀리에 아헨-1562년부터는 프랑크푸르트-으로 상징물들을 가져갔고, 1452년 프리드리히 3세의 황제 대관식 때는 알프스를 넘기도 했다. 이 보물들은 군주들이 방문하거나 종교 회의가 열릴 때, 또는 아헨으로 향하는 헝가리, 슬라브 지역의 순례자들이 들를 때마다 공개되었다.<sup>45)</sup>

### 3. 영방과 제후가문들

샤를마뉴의 기억은 독일의 지방주의 전통과 인과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그 기억에 관련한 지방 전승은 주로 북서부의 저지방과 북부의 작센, 그리고 남부의 슈바벤, 바이에른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했다.

먼저 브라반트에서는 예전 황제의 대리인으로 파견된 방백들이 이미 11세기 중엽부터 영방 제후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가계에 카롤링가의 피를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본래 프랑크왕국의 본거지였고 또 그 가문의 명맥이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만큼 그 피를 관개하기가 좀더 수월했다. 그리하여 브라반트 공작들과 나뮈르, 블로뉴 백작들이 카롤링 혈통과 함께 트로이 왕족에까지 닿는 조상을 두게 되었고, 그리하여 샤를마뉴에 대한 기억과 전승들의 온상이 되었다. 한편 프리슬란트에서는 샤를마뉴를 자유의 원천-“샤를 왕이 프리슬란트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었다(Rex Carolus Frisones liberos fecit)”-으로 표상하는 전통이 뿌리를 내렸다. 12세기 중엽의 전승에 따르면, 주민들의 17개조 청원을 받아들여 인신상의 자유와 소유권, 배심원단의 선거와 군사적 봉사의 제한 등을 명시한 영방법(Landrecht)은 바로 그 군주의 업적이었다. 요컨대 이 지역에서 그는 해방자요 입법자로 기억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차후 독일 전역에 퍼진 법과 권리의 원천으로서의 샤를마뉴라는 표상의 모태가 되었다.<sup>46)</sup>

30년전쟁 끝에 제국의 역사에 편입된 작센의 경우 샤를마뉴에 관한 집단기억의 역사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다채롭게 펼쳐졌다. 초창기 비(非)작센인

45) *Ibid.*, pp. 517-530.

46) *Ibid.*, pp. 112-114, 171-176, 334-340, 439-442,

작자들의 기록에서 두드러진 것은 과거의 이교도에 대한 적대감이었다. 지도자 비두킨트(Widukind)는 ‘악의 뿌리(radix sceleris)’였고, 따라서 정복의 유허은 곧 신의 복수이며, 샤를마뉴와 프랑크족은 그 복수의 도구였다. 하지만 개종 후 한 세기가 지나면서 작센인 작자들에게서도 정복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이끈 프랑크 십자군은 작센족의 땅에 참다운 신앙의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프랑크족과 한 종족으로 통합”하려는 신의 뜻이었으며, 그 정복자는 개종 후 성숙해진 작센인들의 충성에 보답하여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정복된 땅이 정복으로 열린 새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비두킨트 또한 저항의 지도자에서 정복자의 벗이자 방백이 되었고, 가상의 족보를 통해서 주요 지배 가문들의 선조로 탈바꿈했다.<sup>47)</sup> 오토 대제 시대에 이르러 코르비의 수도사 비두킨트는 이를 두고 “프랑크족의 친구요 동맹자였던 작센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하여 두 종족이 차후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록한다.<sup>48)</sup> 그에게도 역시 진정한 영광의 시작은 프랑크족과의 전쟁이라는 신명재판 끝에 패자인 비두킨트가 승자를 대부분 삼아 그의 신앙을 끌어안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서임권투쟁기에 작센은 다시 반역의 온상이 되었고, 황제 하인리히 4세에 대한 투쟁에서 샤를마뉴의 기억을 이용했다. 주로 교회들의 영토였던 작센은 왕령에서 양도된 교회재산을 회수하려는 황제의 정책에 맞서 샤를마뉴가 정복 직후에 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전설을 꺼내들었다.<sup>49)</sup> 이렇듯 옛 황제의 기억이 지방과 교회의 저항 수단이 되기는 했을지언정 그 황제를 무자비한 정복자로 매도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한결같이 ‘작센의 사도(Saxonum apostolus)’이자 쉘리의 집행자였으며, 그 쉘리에 따라 작센인은 피정복민이 아니라 진정한 독일인이 될 것이었다. 비두킨트 또한 작센의 보호자로서 점점 더 성인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의 성 마르탱처럼 이교도였을 적에도 기독교적 미덕을 지닌 인물이었고, 그의 개종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 중세 말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대부와 나란히 작센의 수호자로 기억되었고, 카를 4세의 명

47) *Ibid.*, pp. 28-33, 36-37.

48) R. Folz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 pp. 202-203.

49) 14세기 말에 제작된 『작센법전』의 필사본 삽화는 황제가 무릎을 꿇은 비두킨트에게 이 법전을 하사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R. Folz, *Le Souvenir et la légende*, p. 531.

으로 헤르포드 근방에 있는 그의 묘지가 복원되었다.<sup>50)</sup>

바이에른 공작 타실로(Tassilo)도 비두킨트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하지만 비두킨트와 달리 본래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여러 수도원을 건립하고 후원했으며, 그래서 주교들은 정복자 편에 가담한 반면 수도원들은 그의 편에 섰고 점점 더 그를 성인으로 변모시켰다. 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페팽의 누이 힐트루트의 아들로 샤를마뉴가 롬바르디아 왕에 봉했으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벌로 장님이 된 뒤 깊이 뉘우치며 수도자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공작이 그의 사촌과 화해했듯이 바이에른인들도 프랑크인들과 화합했다.<sup>51)</sup> 앞서 말한 라티스본의 전승에서 바이에른 주민들은 스스로 정복자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고 그의 신민들과 하나가 되어 혼족과 싸운다.

타실로와 샤를마뉴의 친척관계는 이 정복자와 바이에른 사이의 대립을 누그러뜨릴 뿐 아니라 이 지방과 그 군주 사이의 깊고 오랜 유대를 뒷받침했다. 특히 그 군주와의 혈연적 유대는 카롤링, 오토, 벨프 가문 등을 거쳐 12세기 말부터 이 지방을 지배한 비텔스바흐 가문에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합스부르크 가문까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막시밀리안의 치세에 요하네스 쿠스피니안(J. Cuspinian)은 카이저르부터 시작된 황제들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이 가계에서 배출된 123명의 성인들 가운데 비록 방계이지만 성 샤를마뉴, 힐데가르트, 롤랑을 끼워 넣었다. 1522년 카를 5세에게 헌정한 책에서 같은 저자는 샤를마뉴를 이렇게 소개한다. “성 샤를마뉴, 페팽의 아들, 상·하 오스트리아 공작. 독일 땅 라인 강변의 잉겔하임에서 출생. 첫 독일인 로마 황제. 열렬한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세계의 판도를 크게 넓히고, 선종하여 아헨에 묻히다. 축일은 1월 28일.”<sup>52)</sup>

#### IV. 맺음말

이 축일은 황제 카를 4세의 외조카인 샤를 5세 때 프랑스 궁정에 도입되어 ‘프랑스국왕이자 황제, 성 샤를마뉴’ 축일이 되었고, 그의 증손자인 루이 11세는 이 위대한 선조의 기일을 왕국의 공식 축일로 선포했다.<sup>53)</sup> 열렬한 샤를마

50) *Ibid.*, pp. 117-120, 498-499.

51) *Ibid.*, pp. 351-356.

52) *Ibid.*, pp. 539-546.

53) R. Folz, “Aspects du culte liturgique de saint Charlemagne en France”, pp.

뉴 승배자였던 이 국왕은 1464년 디에프에서 보헤미아왕 게오르게(Jiří z Poděbrad)가 보낸 두 명의 특사를 접견한다. 어린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에 선출된 보헤미아왕은 정통성이 약했을 뿐더러 후스파였던 까닭에 교황청과 불화를 빚고 있었다. 이 같은 궁지를 벗어나고자 그는 노련한 외교술을 발휘했고, 마침내 기독교 군주들의 연합을 구상했다. 이 연합은 항구적 의회와 국제법정, 투르크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을 갖추며, 이를 위한 공동 기금은 로마교회의 십일조를 박탈하여 충당될 것이었다.<sup>54)</sup> 비록 무산된 계획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나는 바로 결의 독일제국을 두고 대등한 군주들의 연합체를 구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연합의 중추로 여겨진 프랑스의 군주가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내적으로 봉건 제후들의 준동을 제압하는 데 골몰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부르주 조칙을 둘러싸고 로마와 대립하고 있었음에도 공연히 교황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프랑스 군주정의 내향성은 샤를마뉴에 대한 기억의 역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프랑스의 샤를마뉴는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신민들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에 봉사했고, 꾸준한 왕권의 성장과 함께 그의 표상 또한 응집성을 더해갔다. 이는 프랑스왕국이 그 위로 보편제국의 지평과 그 아래로 지방들의 지평 사이에서 진정한 ‘공동의 조국(*patria communia*)’이 되어간 국가 건설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일찍 들어선 왕국이 보편제국과 영방들 사이에서 진정한 충성의 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신민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는커녕 이 왕국의 군주들에게는 카페조의 프랑스에 견줄 만한 체계적인 통치기구도 집중된 왕령지도 없었다. 하느님이 지상의 모든 왕국들 위에 세웠다는 제국의 권위가 그 왕국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 것처럼 독일왕국은 그 아래의 영방들 앞에서 무력했다. 이렇듯 권력의 기반이 허약했던 이 왕국에서 예의 표상은 내부의 통합보다는 대외적으로 권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동원되어 점차 제국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하여 교황청과 프랑스왕국의 표상들과 충

79-81. 루이 11세 치세의 샤를마뉴 담론에 대해서는 J. Monfrin, “La figure de Charlemagne dans l’historiographie du XV<sup>e</sup> siècle”, *Annuaire-Bulletin de la SHF*, 1964-1965, pp. 67-78 참조.

54) 유네스코는 1964년 이 연합 계획의 500주년을 기념했다. P. Vareika, “Louis XI n’a pas voulu de l’Europe”, *L’Européen*, Nos. 19-21(1988), pp. 60-63.

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세력과의 갈등에 따른 독일제국의 딜레마가 결국 그 표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현실 정치의 무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 요인이었다.

요컨대 샤를마뉴는 그가 봉사한 왕국과 제국 자체의 이미지였거니와, 프랑스왕국의 샤를마뉴가 주로 국왕 숭배(religion royale)의 일부로 자리잡아 군주 권력의 후광으로 구실했다면, 독일제국의 샤를마뉴는 한편으로는 제국 이상의 화신으로,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종교단체와 지방 권력들의 수호성인으로 봉사했다. 다시 말해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구심점으로 수렴되어 갔다면, 독일에서의 기억은 점점 더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권력의 의례와 상징물들의 역사는 이 같은 대조를 뚜렷이 보여준다. 즉 프랑스에서는 쟁트니와 령스에 집중되고 고착된 일련의 의례와 상징물들이 독일제국에서는 아헨에서 로마에 이르는 여러 도시들에 분산되었고, 특히 샤를마뉴의 성유물과 상징물들이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sup>55)</sup> 카롤링가의 혈통도 마찬가지였다. 종교동란기에 프랑스에서는 기즈 공작이 샤를마뉴의 혈통을 내세워 왕위 계승권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었던 데 비해 독일에서는 이런 가문이 여럿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절대왕정 아래서 고등법원이 원용했던 그의 중신들에 관한 기억이 독일에서는 이미 수세기 전에 제후단의 국왕 선출권을 제도화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렇듯 독일에서 그 기억은 너무도 무성하게 가지를 뻗은 나머지 서로 얽히고 부딪히며 무기력과 침묵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실제의 제국으로 출발해서 이름뿐인 제국으로 퇴색해간 독일에서 그것은 낡고 취약한 제국의 구조를 가리는 상고적인 장식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거꾸로 한결같이 왕국이었던 프랑스는 실질적인 제국으로 변모해갔다. 결국 샤를마뉴는 루이 대왕을 거쳐 나폴레옹에게서 프랑스황제로 부활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민족의식이 고양되던 시대에 황제라는 칭호는 걸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제국은 민족들의 유럽을 낳았고, 그 가운데 공동의 유산을 놓고 다투던 형제들은 복수를 외치는 숙적이 되어갔다. 그럼에도 샤를마뉴와 그의 제국이 남

55) 1794-1796년에 아헨과 뉘른베르크에 있던 샤를마뉴의 제관과 보검, 성창(聖槍)을 비롯한 제국의 상징물들은 모두 비엔나로 옮겨져 밀봉되었다. “나는 샤를마뉴다”라고 선언한 나폴레옹은 아헨의 마리아교회(Marienkirche)를 주교좌 성당으로 승격시켰으며, 한때 아헨 궁정의 열주와 살문들을 파리로 가져갈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K. F. Werner, “Aix-la-Chapelle”, pp. 72-73.

긴 기억의 유산은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영방국가들로 분열된 독일만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광기로 분열된 유럽을 다시 통합하는 기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주제어 : 샤를마뉴(Charlemagne), 로마제국의 부활(Renovatio Imperii Romanorum), 보편군주권(Universal Monarchy), 서임권투쟁(Investiture Controversy), 독일왕국(Regnum Teutonicorum)

## 〈참고문헌〉

- 성백용, 「샤를마뉴, 열두 세기에 걸친 황제의 전설」, 『역사비평』, 72호, 2005, 가을: 388-416.
- 이경구, 『중세의 정치 이데올로기』, 느티나무, 2000.
- Babel, R. et J.-M. Moeglin éd. *Identité régionale et conscience nationale en France et en Allemagne du Moyen Age à l'époque moderne*, Paris/Sigmaringen, 1997.
- Bathias-Rascalou, C., *Charlemagne et l'Europe*, Paris, 2004.
- Beaune, C.,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1985.
- Bloch, M., "L'Empire et l'idée d'Empire sous les Hohenstaufen", *Mélanges historiques*, t. 1, Paris, 1963: 531-559.
- Braunfels W. et al., *Charlemagne: Oeuvres, royonnement et survivances*, Aachen, 1965.
- Brühl, C., *Naissance de deux peuples: Français et Allemands(IX<sup>e</sup>-XI<sup>e</sup> siècle)*, G. Duchet-Suchaux trans., Paris, 1994.
- Ehlers, J., *Charlemagne, l'Européen entre la France et l'Allemagne*, Stuttgart, 2001.
- Einhard & Notker the Stammerer, *Two Lives of Charlemagne*, L. Thorpe, trans. & ed., London, 1969.
- Folz, R. éd., *La naissance du Saint-Empire*, Paris, 1967.
- Folz, R., "Aspects du culte liturgique de saint Charlemagne en France", W. Braunfels ed., *Karl der Grosse: Lebenswerk und Nachleben*, Band 4, Düsseldorf, 1968: 77-99.
- Folz, R., *Etudes sur le culte liturgique de Charlemagne dans les églises de l'Empire*, Paris, 1951.
- Folz, R., *Le souvenir et la légende de Charlemagne dans l'Empire germanique médiéval*, Paris, 1950.
- Folz, R., *The Concept of Empire in Western Europ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y*, S. A. Ogilvie trans., London, 1969.
- Kantorwicz, E. H., "Mysteries of State: An Absolutist Concept and its Late Medieval Origins", *Selected Studies*, New York, 1965: 381-

- 398.
- Lelievre, C., "Charlemagne: Un héros national, catholique romain ou européen", C. Carpentier éd., *Identité nationale et enseignement de l'histoire*, Paris, 1999: 43-49.
- Maillet, J. éd., *Le Songe du vergier qui parle de la disputacion du clerc et du chevalier*, *Revue du Moyen Age latin*, t. 13, 1957, réimp. de l'éd. Brunet, 1731.
- Monfrin, J., "La figure de Charlemagne dans l'historiographie du XV<sup>e</sup> siècle", *Annuaire-Bulletin de la SHF*, 1964-65: 67-78.
- Morizet, J. & H. Möller dir., *Allemagne-France: Lieux et mémoire d'une histoire commune*, Paris, 1995.
- Morrissey, R., *L'empereur à la barbe fleurie: Charlemagne dans la mythologie et l'histoire de France*, Paris, 1997.
- Morrissey, R., "Charlemagne",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I/3, Paris, 1992: 631-673.
- Otto von Freising, *The Two Cities: A Chronicle of Universal History to the Year 1146 A. D.*, A. P. Evans & C. Knapp ed., Columbia Univ., 1928.
- Scholz B. W. trans. & ed., *Carolingian Chronicles*, Univ. of Michigan, 1972.
- Spiegel, G. M., "The 'Reditus Regni ad Stirpem Karoli Magni': A New Look",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1971: 145-174.
- Sullivan, R. E. ed., *The Coronation of Charlemagne, What Did It Signify?*, Lexington, 1959.
- Tessier G., éd., *Charlemagne*, Paris, 1967.
- Thietmar von Merseburg, *Ottonian Germany: The Chronicon of Thietmar of Merseburg*, D. A. Warner trans., Manchester, 2001.
- Tulard, J. dir., *Les empires occidentaux de Rome à Berlin*, Paris, 1997.
- Vareika, P., "Louis XI n'a pas voulu de l'Europe", *L'Européen*, Nos. 19-21, 1988: 60-63.
- Werner, K. F., "Les nations et le sentiment national dans l'Europe médiévale", *Structures politiques du monde franc, VI<sup>e</sup>-XII<sup>e</sup> siècles*, London, 1979: 285-304.
- Zeller, G., "Les Rois de France candidats à l'Empire: essai sur l'idéologie impériale en France", *Revue historique*, t. 173, 1934: 273-311, 497-534.

## 〈Résumé〉

Mémoires contrastées de Charlemagne en France et en Allemagne au  
Moyen-Age

Baik-Yong SUNG

Concernant Charlemagne, la France et l'Allemagne constituent une communauté de mémoire, mais elles n'en montrent pas le même parcours. Cette divergence s'explique par le fait qu'à la différence du Charlemagne français considéré comme *rex Francorum*, celui de l'Allemagne incarne un impérium multiple et universel, tel que *Imperium Francorum*, *Imperium Romanorum* et *Imperium Christianum*. En France la représentation de Charlemagne joue un rôle idéologique de renforcer la légitimité de la dynastie et d'unifier ses sujets. Elle devient plus cohésive grâce à la royauté renforcée. En revanche, la représentation allemande de Charlemagne, soulignant l'impérialisme plutôt que l'unité interne, finit par se heurter aux réclamations de la part de la Papauté et de la monarchie française et perd sa puissance initiale. Après avoir connu au niveau impérial ce déclin accéléré au cours du Moyen-Age, les mémoires de l'empereur deviennent pourtant exubérantes au niveau local ou régional, en particulier dans communautés religieuses, cités et principautés. Un phénomène qui rappelle parfaitement la réalité de l'Empire où la force centrifuge surpasse la force centripète.

En dernière analyse, Charlemagne représente l'image de l'Empire et du royaume qu'il servait. Tandis qu'il, placé au coeur de la religion royale sert en France d'un halo de l'autorité royale, il est considéré en Allemagne comme un avatar de l'idée impériale d'un côté, et comme un patron de plusieurs intérêts locaux ou régionaux de l'autre. En d'autres termes, les mémoires de Charlemagne indiquent un effet centripète en France alors qu'elles tendent à diverger dans l'Empire voisin.

## 〈Summary〉

Contested Memories of Charlemagne in  
Medieval Germany and France

Baik-Yong SUNG

With regard to Charlemagne, France and Germany have been a community of memory, but their paths were quite different. This divergence mainly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unlike the French Charlemagne represented as *rex Francorum*, the German counterpart epitomized multiple and universal imperium, such as *Imperium Francorum*, *Imperium Romanorum*, and *Imperium Christianum*. The figure of Charlemagne in France that became increasingly cohesive with the growing royal authorit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dynastic legitimacy and subjects' unity. In Germany, by contrast, the same figure captured by the imperial ideology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symbol of internal unity, came to collide with the claims on the part of Papacy and of the French monarchy, and consequently lost its initial power. However, in contrast to such decline in the imperial dimension, by the late Middle Ages the memories of the Emperor grew exuberant in local or regional level, especially such as the religious communities, cities and principalities. This tendency apparently represented the realities of the Empire in which centrifugal forces surpassed centripetal ones.

In the last analysis, Charlemagne appeared as the images of the Empire and the Kingdom themselves he served. While in France he, in the heart of royal religion, served as a halo of royal authority, in Germany he was considered to be an avatar of imperial idea on the one hand, and a patron of various local or regional interests on the other. In other words, while memories of Charlemagne indicated centripetal tendency in France, they tended to diverge in the neighboring Empire.